

박근혜정부 계기교육 지침 올해부터 폐지

박근혜정부에서 교육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마련했던 일선 학교 계기교육 지침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회의록 갖고 2016년 교육부가 마련했던 계기교육 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았던 특정 주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을 뜻한다.

학교 민주주의 확대 차원

학교장 재량권으로 위임

교육부는 일부 교직원체가 계기교육을 하면서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2016년 3월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사회적, 정치적 현안 문제를 다루는 계기교육을 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시 방향을 설정하도록 했다.

황사에 대비한 환경교육은 적합한 사례로 들고, 전교조 법의 노조 반대와 한국사 교과서 부당 검정 등은 부적합한 사례로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이 지침을 폐기하고 국내의 주요 정책 변화에 관한 계기교육을 할 경우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지도 방향을 검토한 다음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뤄지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계기교육 지침은 통제적인 성격이 강했다"며 "학교 민주주의 실현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기교육 지침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건조주의보 속 전남서

논두렁 등 화재 30여 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논두렁 화재 등 총 30여 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순천은 건조경보가, 광주와 전남 여수, 광양, 장흥, 화순, 구례, 완도, 강진, 보성, 고흥, 담양, 곡성은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낮 12시36분께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인근 다랑이논(비탈진 산골짜기에 만든 좁고 작은 계단식 논에서 불이 나 약 1시간만에 진화됐다.

산립당국은 제압신과 인접한 마을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군청 인차행기 2대와 소방차 10대, 공무원과 소방대원 100여 명을 진화작업에 투입해 진화했다. 경찰은 논에 난 잡초를 태우다 인근 논으로 불이 번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30분께는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논에서 불이 나 인근 임야 99㎡(잡정추산)를 태우고 1시간만에 진화됐다.

오전 11시27분께는 강진군 군등면 화산리 달명마을 인근 논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40분만에 꺼졌다.

또 오전 10시50분께는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인근 논두렁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농업부산물을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전남지역에서는 장성과 해남, 영암, 영광 등에서 크고 작은 불발 3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 속에 논밭에서 잡초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불이 번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점에서 신학기 준비 신학기를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 대형서점에서 어린이들이 참고서를 살펴 보고 있다.

광주경찰, 강간미수·방화·데이트폭력범 잇따라 검거

설 명절 기간 가정폭력과 방화, 절도, 강간미수범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벌여 결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을 비롯해 강간미수범, 절도, 데이트폭력 30대 남성 등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한 가정집 앞에서는 내연관계의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유모(57)씨가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유씨가 흉기로 위협 하며 도주하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붙잡았다.

앞서 이날 오전 12시40분께 북구 운암동 한 호프집에서는 남성이 침입해 여주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간미수 혐의로 붙잡혔다.

또 지난 16일 오전 12시35분께 북구 오지동 도로에서는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다니는 것을 CCTV관제센터가 발견하고, 인근의 경찰에 전파해 검거했다.

태국국적의 남성 4명은 지난 11일 구도한 흔적을 치위달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열쇠를 빼내 도주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지난 9일 남구 백운동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출소 두달여만에 옛 여자친구의 집 인근에 찾아와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가정폭력을 호소하는 피해자 구호조치도 이뤄졌다.

지난 12일 오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맞은 임신한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전화에는 신음소리만 들렸고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여성의 위치를 파악한 뒤 남편을 검거했다.

지난 6일에는 아버지의 상습 폭

행이 두려운 청소년의 신고가 접수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아동보호명령을 신청했으며 전문기관의 상담사와 동행해 보호조치했다.

이 밖에도 광주경찰은 특별활동기간 지역을 순찰하던 중 한 건물 5층의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동조치했으며 도로에 쓰러져 있는 독거노인에게 위로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45분께에는 눈을 다친 23개월 어린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탑승해 있는 택시가 차량행렬에 막혀 병원으로 가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량으로 긴급이동조치했다.

광주경찰은 특별치안활동기간 하루평균 998명, 총 1만3971명을 동원했다. 그결과 5대범죄는 지난해 424건(하루평균 30.2건)에서 올해는 414건(하루평균 29.7건)으로 1.7% 감소했으며 검거율은 333건에서 347건으로 늘었다.

신봉우 기자

이주여성에게 접근해 금품 훔친 50대 달미

이주여성에게 친절을 베풀며 접근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7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베트남 이주여성의 휴대전화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11시께 광주 동구 한 병원 앞에서 베트남 이주여성 A(38)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척 하며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의 부인도 베트남 출신이다"며 커피를 사주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겠다고 하며 A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씨와 같은 버스에 탑승해 나중에서 광주까지 이동했으며 휴대전화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보한 뒤 검거에 나섰다지만 최씨가 휴대전화 등을 끈 채 잠적하자 지명수배했다.

이후 최씨가 자신의 부인과 친형과 통화를 자주하며 특정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을 파악한 뒤 범행 7개월여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의 여태가 더 있을 것을 보고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피스텔서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업주 구속

광주경찰청은 18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오피스텔에 방 6개를 임대한 뒤 3500여만원을 받고 남성들에게 4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을 고용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올렸으며, 신원이 확인된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불러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사전 예약제로 업소(일명 '오피')를 운영한 점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성매매 여성이 갑금·족발·임금착취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보호·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난민 신청 30대, 몸에 불 지르려다 미수

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파키스탄 국적 아프카니스탄인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중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500ml짜리 페트병에 담겨 있던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있던 조서관은 곧바로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불이 나지 않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난민 신청이 기각된 이후 재심 신청을 위해 이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 직원과 재심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인형뽑기방 돌며 1300만원 훔친 30대 구속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형뽑기방을 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형뽑기방에 잠입해 지폐교환기를 들고 현금 약 1300만원을 훔친 최모(34)씨를 상습아각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인형뽑기방에 복면을 쓴 채 잠입해 지폐교환기를 들고 3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4월까지 약 보름 간에 걸쳐 서울에서 11차례, 경기에서 3차례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

